불교 품은 名山, '명승' 된다

〈명산〉

국가유산청, 연속 지정예고
무위사 등 자리한 월출산
인문지리 · 민속적 가치 높아
강화 정족산, 전등사 중심
불교 · 사고 등 역사성 높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예고된 월출산의 마애불(사진 왼쪽)과 강화 정족산 전등사 전경.

불교 고찰들을 품어낸 명산들이 잇달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예고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8월 7·10일 각각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불교문화·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월출산 일원'과 다양한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역사문화 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예고했다.

'월출산'은 〈삼국사기〉에 월나군(현 영암군) 소재의 '월내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수록돼 있다. 월출산 천황봉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나라의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산악신앙과 국가 의례의 전통이 이어진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 내 위치한 사찰 중 하나인 무위사는 선종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생생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으며 남측 완만한 산세와 평야를 향한 개방적 입지, 낮고 절제된 극락보전 건축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또 다른 사찰인 도갑사는 통일신라 때 도선 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도선국사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계곡을 따라 수림·암반·문화유산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이 돋보이며, 이러한 경관은 고지도, 시문, '백운동도' 등 고려·조선시대의 옛 자료에 기록된 내용들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월출산은 오랜 시간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명산이자, 뛰어난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춘 중요한 유산이다.

지질·생태적 가치도 뛰어나다. 월출산은 평야에서 급격히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서 선캄브리아기부터 백악기까지 다양한 화강암류가 분포하며 돔형 암봉, 성곽형 암릉 등 화강암 풍화 지형이 탁월하게 발달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등 특이 식생이 분포해 생태학적 가치 또한 높다.

국가유산청은 "구정봉에 위치한 아홉 개의 우물 등 지형과 관련된 여러 신앙·설화가 전해 내려와 인문지리·민속학적 가치도 뛰어나다"면서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문 기록을 통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명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산악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유산적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우수한 가치를 보유한 자연유산"이라고 평가했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고려시대 가궐(假闕, 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궁궐)과 국가 불교의례, 조선시대 사고와 선원보각, 병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한 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곳이다. 고려 이색을 비롯한 많은 문인의 유람 기록과 고문헌을 통해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정족산의 산봉우리와 자연지형을 활용해 조성된 포곡형의 산성인 삼랑성과 자연 사면을 따라 배치된 전등사, 사찰림과 노거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인문환경이 하나의 경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통적인 산지가람의 입지와 자연지형에 순응한 산성과 사찰의 배치는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랑성과 전등사를 잇는 옛길은 사찰 참배와 유람, 지역 주민의 생활을 연결하던 통로로 활용되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더한다"고 전했다.

불교미술로 만나는 '무상·연기·자비'

불미전 8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서 개최
작가 21명 33작품 선봬



조계종은 8월 12일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연기·자비를 불교미술로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8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 시작을 알렸다.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無相)·연기(緣起)·자비(慈悲)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예술로 풀어낸다. 전시에는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초대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조각·공예·미디어아트 등 33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총무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획전은 불교의 지혜를 작가 각자의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며,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 사이의 인연과 공존의 가치를 작품 속에 담아냈다"면서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획전이 불교미술의 깊은 정신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가 인연의 소중함과 공존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시는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진행된다. '무상'에는 강신자, 신상철, 신호윤, 안경진, 이혜원, 장줄리앙 푸스, 채승연, 최경락 작가가 '연기'에는 김경미, 김민, 서용, 양선희, 이배경 작가가 '자비'에는 송천 스님, 곽홍찬, 오원배, 원천수, 유현정, 이진경, 최학, 현승조 작가가 참여해 불교미술의 정신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입구의 '순환'과 출구의 '등대', 승려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가 '돌의 선율'이라는 작품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인 '무상'의 의미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장줄리앙 푸스는 "작품 '돌의 선율'은 시간을 초월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제작했다"며 "오랜 세월을 견뎌온 돌조차도 공간의 조건에 따라 매 순간 새로 태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 했다"고 작품의 의미를 전했다.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오는 8월 26일까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오는 8월 27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을 공모한다.

공모 자격은 2025년 9월 3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 발표된 콘텐츠 가운데 불교적 관점을 담은 작품이다. 특히 올해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제작 방식 등을 반영해 기존 '뉴미디어' 부문의 명칭을 '디지털 콘텐츠' 부문으로 변경했다. 기존 특별상을 '불교문화' 부문으로 변경해 변화를 꾀했다.

시상 부문은 △방송(TV·라디오) △언론보도 △디지털콘텐츠(인터넷TV, 홈페이지 및 카페,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웹툰 등) △불교문화 △언론인이다.

심사를 통해 올해의 불교언론문화상 대상(1개 작품), 언론인상(1인), 최우수상(각 부문), 우수상(각 부문), 불교문화상(2개)을 선정한다. 상금은 대상에 1000만원, 언론인상에 300만원, 최우수상에 각 300만원, 우수상에 각 200만원, 불교문화상에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는 8월 27일까지 방문과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02-2011-1681

박지운 기자

불교음악 관련 공모 잇달아

불교음악상 · 신작찬불가 공모

조계종이 불교음악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잇달아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성원 스님)와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8월 31일까지 '제8회 불교음악상'을 공모한다.

불교음악상은 추천 공모를 통한 후보 접수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후보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장 및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 및 각급 문화·포교·신도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헌정 음악회와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제12회 신작찬불가'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조계종 불교음악원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출품된 작품들은 대중성, 작품성 등을 심사해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발표되며, 당선작에는 1편당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완성된 신작 찬불가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시상식 및 신작 발표 연주회에서 초연된다.

신중일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